

## 천만년 높이가 반들어 모시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 사 는 정 김 신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웅한 인민군장병들!

동포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로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속에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겉쌓이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강의한 인민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큰 힘과 지혜를 얻으며 조국번영의 진군길을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튼튼한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속에서 우리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결사옹위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한것입니다.

바로 1년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그 리행을 위한 여러차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

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위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장거입니다.

(2면으로 계속)

# 신 김 년 정 은 사

(1면에서 계속)

나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적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것을 세계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온 한해 헌신분투한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새형의 트랙트르와 화물자동차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 대렬을 늘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전형단위들이 련이어 태어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었습니다.

지난해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환경이 보다 일선되었으며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혁명적량만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공연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

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의 사변적인 나날들에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킴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쳐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동력기지를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가적인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전력량비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전력, 철정광, 무연탄, 갈탄, 화차와 기관차,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 다음해 철강재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희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진 완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트랙트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 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렬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습니까.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 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 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 하는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

하고 강화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 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시 은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진법을 창조하며 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송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조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까.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군대는 혁명적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전투훈련을 실천환경에 접근시켜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3면으로 계속)

# 신년정신

(2면에서 계속)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대로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켓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째 없애고 모를 박고 혁명적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연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모두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북중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모 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 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레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항쟁에 의하여 파쇼통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수 없을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둘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 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판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도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 갈수 있습니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를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 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사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다시한번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지들!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뜨우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입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입니다.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 절세위인의 통일애국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의 첫 아침에 발표하신 신년사를 뜨거운 걱정속에 이 가슴에 받아 안았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어 새해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획기적인 방략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일애국의 령도를 받들어갈 때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도 열린다는 것

은 이해의 첫 아침 온 겨레가 더욱 가슴절절하게 느끼는 진리이고 확고부동한 믿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열과 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종교인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종교인들과 힘을 합쳐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는 의의깊은 해로 빛내이는데 기여할것이다.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 지 영

##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긍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다는 원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민족운명의 참다운 수호자, 통일번영을 이끌어갈 실 회세의 위인을 모시고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더욱 부풀어올랐다.

정말 우리 민족은 위인복을 지닌 행성의 자랑높은 민족이다. 저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온갖 친어머니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뜻깊은 새해에 통일애국사업에 자신의 심신을 다 바쳐나갈것다.

비전향장기수 리 재 룡

## 온 겨레를 따듯이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나는 그토록 비움고싶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TV를 통해 육성으로 접하는 커다란 행운을 지니었다.

지난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를 총화화시키고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 2018년의 휘황한 설게도를 밝혀주시는 그이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들으면서 절세의 위인을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느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강조하시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이의 우렁찬 음성 들으면서 격정에 눈곱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온 겨레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통일애국의지로 가슴 불태우시는 위대한분이신가.

민족을 제일로 위하고 온 겨레를 따듯한 사랑의 품에 열싸안아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를 모시어 우리 민족의 앞길은 밝고 조국통일의 환희로운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해외에서 살지만 절세위인을 모신 조선민족의 일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새해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강국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쳐나갈것다.

재중동포 김 명 조

#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주제 107(2018)년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겨레는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새해는 공화국창건 일흔둘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다.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책정정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이다.

북과 남의 당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

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 단상

## 흰눈에 엮는 생각

이 상징하듯 우리 겨레가 예로부터 좋아하는 색도 흰색이 아니던가.

그 흰눈이 포근히 내려쌓여 강산을 소복단장시키면 삼천리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 저주로운 분계선의 표말도 보이지 않고 북도 남도 하나의 온빛세계가 된다.

때면 사람들은 갖은 상념과 추억에 잠기곤 한다. 누구는 흘러온 한해, 인생의 시절을 감미롭게 추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새해의 포부와 관련한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함박눈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 조용히 깃든것은 통일에 대한 생각이였다.

흰눈과 조선민족, 흰눈과 통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두 개념이다.

회고 깨끗한 눈처럼 순결하고 레의가 밝으며 인정이 많은 조선민족이다. 《백의민족》

한박눈이 펄펄 내릴 때면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다.

북남아, 하루빨리 하나가 되여라!

겨레의 통일소원 하늘에 닿아 저 하늘도 이 땅우에 흰눈을 계속 내려보내주고있지 않는지...

이해는 분렬 73년, 너무도 지나간 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아온 우리 겨레이다. 이루지 못한 통일소원 가슴에 묻

고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고 오늘은 우리 세대가 머리에 흰서리 엮어지며 자라나는 후대들을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본다. 그리고는 흘러가는 세월을 야속하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자식들에게 속삭인다.

애들아, 너희들에게는 분렬된 이 세상을 넘겨주지 않으려나, 기다려다오, 통일세상을 꼭 안아다주마, 우리 부모들의 소원, 너희들의 희망, 아니 온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실 절세의 위인이 계신다고.

온 겨레를 품에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혹을 기어이 관철할 결심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시는 통일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리기에 이 땅의 새해 2018년은 민족의 통일력사에 자랑찬 한페지를 수놓아가게 되리라.

최 광 혁

# 행복의 웃음속에 밝아온 새해

승리와 영광, 기적과 번혁으로 들끓는 이 땅에 또다시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기쁨과 환희, 희열과 랑만이 넘쳐흐른다. 창조와 건설의 동음높은 공장에 가보아도 좋고 불빛 밝은 거리를 걸어보아도 좋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희열에 넘친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 좋아질 래일에 대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보통때처럼 밝아온 새해가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동안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진군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민족사적 대사변도 많은 지난해에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흥하는 소식, 어깨춤이 절로 나는 소식들이 참으로 많았다. 최근년간에 인민의 재부가 줄지어 쏟아지더니 지난해에는 첫걸음부터 가방폭포, 이

불복포와 같은 행복의 기적들이 련이어 쏟아져 온 나라가 기쁨으로 설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현지도의 그날 쓸어보고 또 쓸어보신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만 자랑이던가, 황홀한 려명거리가 새봄로 일떠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문명의 절정에 올라 삶의 보금자리를 편짓을 비롯하여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세포지구에 이르기까지 새라새로운 소식들로 온 한해 흥성거렸다. 과일군에서의 희한한 과일대풍소식에 이어 북청의 사과풍작소식이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고 다수확군, 다수확농장들이 계속 늘어나 드넓은 포전들에 장쾌한 금나락이 파도쳐 설레었다. 《바다 만 풍가》의 구성진 노래소리 배전마다 넘친 동서해의 자랑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인민의 행복, 인민의 웃음넘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면모가 이 나라의 산과 벌, 바다에 장쾌하고 아름다운 한복의 명화마냥 펼쳐졌다.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행복

을 안겨주는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고 하였다. 한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것도 쉬운 일이 아닐진대 온 나라 인민이 기쁨과 행복의 웃음속에 살게 하는 나라야말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나라이고 강한 나라이다. 적대세력들은 이 나라 사람들의 얼굴에 설움과 절망의 표정이 비끼길 바라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땅에는 천만자식을 자애로운 한복에 안아 세상이 부러워하는 만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신다. 하기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이 나라의 천만근민이 심장마다에 새겨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새해에도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져질것이라는 확신이다. 창조와 기적, 승리와 행복의 웃음으로 련일 흥성일 2018년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내다보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기자는 신재명 경공업성 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새해를 축하한다. 지난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정은 남다르라고 본다. 신재명: 그렇다. 아다싶이 지난해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를 격동시키는 특대사건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난 매우 뜻깊은 해였다. 경공업부문에서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해정초부터 가방폭포, 이불폭포가 쏟아진것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고 이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리고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수많은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한해동안 경공업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그물천생산기지를 꾸려놓아 가방천, 운동복, 신발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고 평양인견사공장에서 년간수천에 달하는 재생인견사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자체로 튼튼히 꾸려놓았다.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열안정제와 충진제를 개발하여 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으며 평양구두공장, 순천구두공장에서도 장식채본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신발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

었다. 기자: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도 높으리라고 본다. 신재명: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새해에도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다종다양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해 나가겠다.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경공업이 세계선진수준에 빨리 올려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경공업부문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기자: 새해에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

송년의 밤은 깊어가건만 불밝은 려명거리의 창가마다에서는 새해의 꿈과 희망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넘치고있었다.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에 입사하여 첫 새해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을 만나보고싶어 우리 는 미야동 73인민반 8층 2호에 들렀다. 초인종을 누르자 세대주 박승일과 안주인인 고월선녀성이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승일은 12월 31일에 깃든 뜻깊은 사연을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사진을 우려했다. 《이 사진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저의 아버지(박철성)에게 기념으로 주신 사진입니다.》 남다른 사연을 안고있는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박승일이 걱정해 잠겨 하는 말이였다. ... 해방전 조국광복회 산하조직에 망라되어 반일항전에 나섰던 박승일의 아버지 박철성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에 의해 민족분렬의 위험이 짙어가자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통일사상을 받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약 뛰어들었다고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런 박철성의 투철한 애국심과 기개를 굳게 믿으시고 자주 만나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1948년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의 아버지를 또다시 만나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광동무에게 앞으로 영원한 혁명동지가 되자는 의미에서 자신

의 사진을 주겠다고 하시며 사진의 뒤면에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이라고 쓰시고 친히 저의 아버지에게 주시였습니다.》 이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목숨 다 바칠 불같은 맹세를 다지는 광철성을 자신의 가까이에서 우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한다. 통일애국투사 광철성과 그의 가정에 둘러주신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더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고월선녀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려명거리의 새 집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원래 살던 집도 별로 불편을 몰랐는데 누구나 부러워하는 려명거리의 새 집을 받게 될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살림집리 용허가증을 받고 너무 기뻐 한달음에 달려와보니 어찌나 희한하고 멋있던지... 온갖 생활조건이 그 쏠리 갖추어진 살림방들이며 가정주부들에게 편리하게 꾸려진 부엌의 여리저리를 쓸어보며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새집들이하는 날 려명거리를 돌아보다가 자기 집에도 들린 외국인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이런 집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

였다고, 세상은 넓고 넓어도 우리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라며 고월선녀성은 말을 이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님 계시여 오늘도 좋지만 새해에 더 밝고 희망찬 앞날이 펼쳐질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오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밤을 어찌 노래춤 없이 그냥 보낼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노래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의 선창을 했다. 가족들모두가 같은 심정이 되어 목소리를 합치였다. ... 은혜로운 해빛 찬란한 별빛 만년대대로 눈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공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곳 원수님 그 품이여 인민의 희망번영의 희망 끝없는 나의 조국아 본사기자 흥범식

부푸는 꿈과 희망에 넘쳐

# 새해에 더 큰 국제경기성과를

보다 큰 희망과 포부에 넘쳐 맞이하는 새해의 아침 이 나라 체육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남다르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랑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온 공화국의 체육인들이다.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2017년에 진행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소식을 안아왔다.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엄윤철, 립정심 등 선수들이 강의한 정신력과 높은 기술로 맞대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를 떨

쳤다. 조국의 장한 딸,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은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미만 여자선수권대회에서와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지난해 체육인들이 이룩한 성과들은 공화국을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느니라 끊임없는 정진과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자랑찬 결

실이다. 새해 주제107(2018)년에도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하게 된다. 지금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미더운 체육전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새해에 더 큰 승리를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새해에도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조국의 영예를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떨쳐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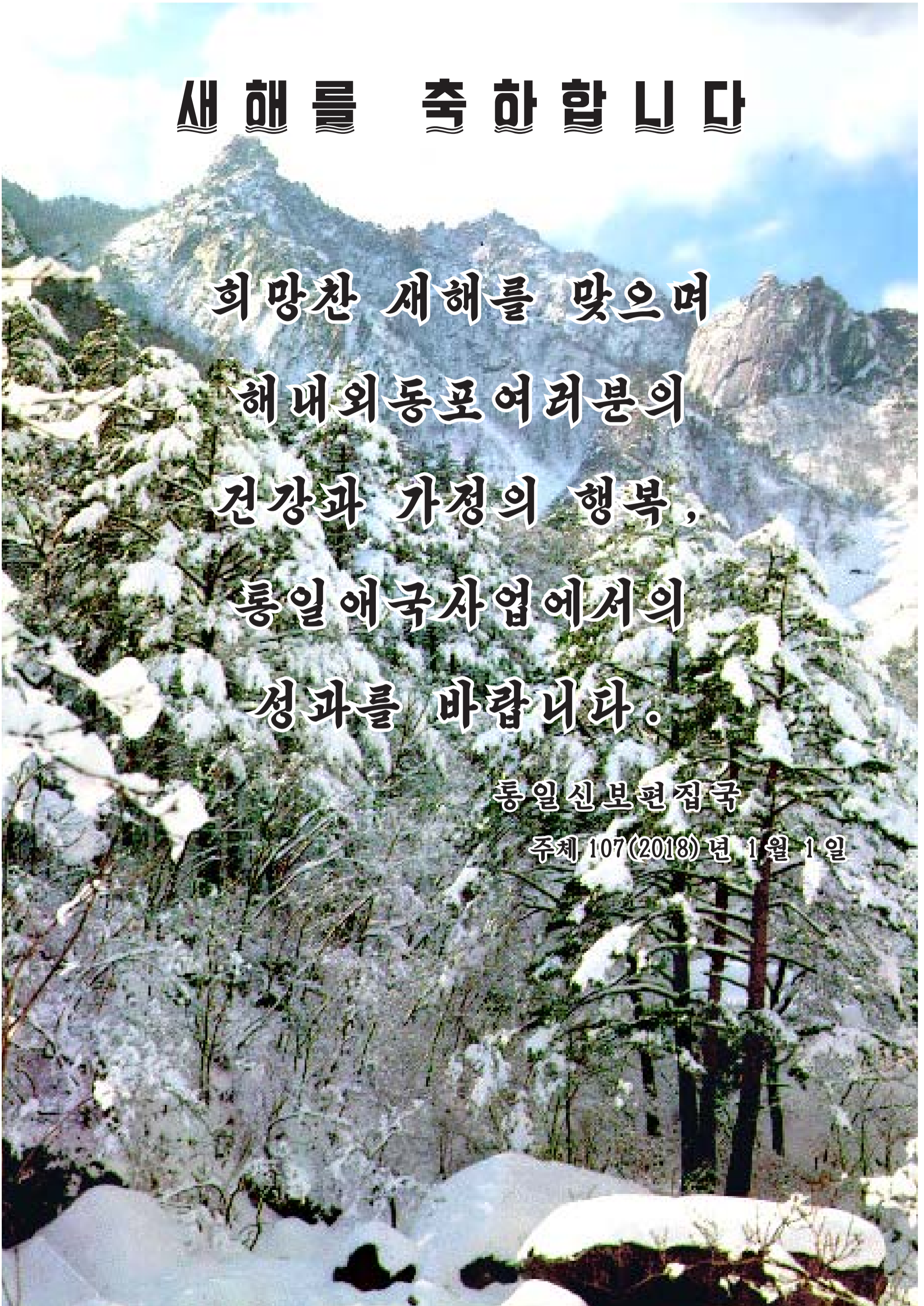


# 새 해 를 축 하 합 니 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해내외동포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통일애국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주체 107(2018)년 1월 1일





주제107(2018)년 1월 1일 0시, 평양의 밤하늘가에 승리와 환희의 아름다운 축포가 터져올랐다.



## 신심드높이 새해의 통일진군을 다 그쳐 나 갑 시 다

희망찬 새해 2018년이 밝아 왔습니다.

겨레의 자주통일열망이 더욱더 끓어오르는 이 시각 저희들이 만든 미숙한 글과 사진들을 소중히 보아주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해내외 독자여러분께 《통일신보》 기자, 편집원들은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력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돌이 되던 지난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는 뜻깊은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온 겨레는 조국통일투쟁을 즐기차게 벌려왔습니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과 북침

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가 더욱 긴장해지고 열핵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었지만 겨레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반미반전평화투쟁, 통일투쟁의 불길을 도처에서 세차게 지펴올리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려는 겨레의 열의는 뜨거웠고 통일열망은 높았습니다.

겨레는 민족운명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조선민족의 운명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주통일로 향한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해는 북에서 공화국창건 일흔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을

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경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새해신년사에서 밝혀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겨레 모두가 적극 노력해나가야 할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또 어디서 살든 그리고 정견과 신앙, 재산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온 겨레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입니다.

새해에도 무소속대번지 《통일신보》는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려는 독자여러분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포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통일애국사업에서의 성과를 바랍니다.

통일신보편집국

## 민족적정서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새해의 달력들

희망찬 새해 주제107(2018)년을 맞으며 주제성과 민족성이 활짝 꽃피어나는 공화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여러 종의 달력들이 나왔다.

새해를 맞으며 평양출판사에서서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조선의 국화 목란, 초롱꽃나무, 금잔국, 글라디올라스, 부상화, 영구화, 향씨꽃을 비롯하여 갖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흰눈덮인 백두산, 안개흐르는 소백수, 해철보의 가을 등 산 좋고 물 맑은 수려한 산천경계를 소개하는 달력을 만들어 내놓았다.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우리 겨레가 예로부터 즐겨 입어온 고 유한 민족옷들을 소개한 달력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달력에 소개된 도라지꽃색의 그윽한 정서로 조선녀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엿보게 하는 꼬리치마저고리차림새, 저고리의 살색과 치마의 대추색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속에 람색고름이 이채로운 치마저고리차림새 그리고 밝고 시원한 하늘색계렬의 바지

저고리에 흰색의 배자를 조화시켜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주는 남성들의 배자차림새 등은 우리의 민족옷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고있다.

외국문출판사에서는 칠보산송이버섯구이, 뱀장어구이밥, 해삼볶음, 소라신선로, 칠면조구이, 왕새우찜, 칠갑상어회와 같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요리들과 함께 신선하고 향기 그윽한 사과, 배, 살구, 딸기, 감, 포도, 수박 등을 소개하는 달력을 내놓았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에서 출판한 TV연속극 《북방의 노을》, TV극 《귀중히 여기라》, 조선예술향화 《우리 집 이야기》, 《내가 사는 가정》, 《졸업증》, 경희극 《북부전역》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소개한 달력도 인기를 모으고있다.

희망찬 새해 2018년을 맞으며 출판된 달력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해내외동포들의 통일애국운동을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 단편소설

## 여 을 들 소 리 (2)

글 현 명 수, 그림 박 봉 혁

그후 윤결에게는 로인의 저력을 아무 날이나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이 차례였다. 그리고 교포들이 얼마 살지 않는 암스테르담에서 그들은 착실한 벗이 되었다.

유진은 윤결이가 조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벌써 반년전부터 알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유진은 마치 하느님이 자기의 기도를 알아주는것 같은 기분이었다.

윤결은 조국으로 떠나기를 며칠 앞두고 유진의 초청을 받았다. 조국방문 축하연을 겸한 만찬은 어둡이 창가에 두툼히 쌓인 겨울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서로 축하의 인사가 오가고 유진이 장농속 깊숙이 간수했던 조선소주와 그의 마누라 숙향이 조리한 민족음식을 배불리 먹

고나서 그들은 차안이 있는 탁으로 자리를 옮겨앉았다. 그곳에서 유진은 윤결의 조국방문예정일을 물었다. 윤결의 말을 이윽고 다 듣고나서 유진은 조심스레 말을 꺼내었다.

《실은 조국을 방문하려는 선생에게 내 한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윤결은 우리사이에 무슨 격식이냐는듯 소탈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차탁우에 숙향이 가져온 CD 한장을 올려놓았다.

《이 늙은이 연구한 식물조직배양기술에 대한 연구자료입니다. 나의 반생은 사과나무의 조직배양에 대한 연구로 흘렸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동형사과나무의 초밀식재배를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사과의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한 기본방도로 보고 여기에 연구사업을 집중하고있습니다. 일반 사과나무는 정보당 2천~3천그루 심는데 기동형사과나무는 1만~2만그루를 심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그루의 기동형사과나무에서 사과를 10kg씩만 수확해도 정보당 100t이상 수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난문제는 기동형사과나무는 결가지가 거의 없으므로 가지자름법에 의한 묘목생산을 실현할수 없으며 접눈이 적어서 접눈에 의한 번식도 거의 할수 없는거지요. 그래서 난 조직배양기술로 기동형사과나무접가지묘목을 생산할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심화시켰던겁니다.》

유진은 자기와 CD를 번갈아보는 윤결에게 눈길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연구자료를 윤결선생이 조국에 가져갔으면 합니다.》

순간 윤결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그러던 윤결의 웃음이 떡 굳어졌다.

《아니, 아니될 말씀입니다. 이 연구자료야 응

답이 풀릴것입니다. ... 이런 말이 있지 않소. 여우도 늑대를 때는 제 굴을 찾아간다고... 요즘은 꿈에서도 내 고향 수청천여울물에 손을 씻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아니만... 제 돌아와서 꼭 선생



님이 조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숙향도 눈굴에 흰 수건을 가져갔다. 한참후에 유진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제 평생소

갈수 없는 몸이요.》 윤결은 놀랐다. 그는 묵히 로인을 지켜보았다.

《나는 말이요...》 하고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뱉었다.

《난 이미 오래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배표를 제 손으로 찢은 놈이외다.》

방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고요하였다. 이윽하여 로인은 지나간 과거사를 털어놓았다.

《난 일본으로 돈벌이 하러 간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났소. 시모노세키에 내려 낫설은 이역의 거리를 헤매며 한달여만에 겨우 아버지가 일하던 광산을 찾았을 때 그만 잘못되었던군. 어머니는 살길이 막막하였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련해보겠다고 야클라클 애를 썼는데 그 때 미국놈 폭격에 잘못되었지요... 그게 아마 8.15해방을 며칠 앞두고였을게요. 나는 일본땅에서 고아가 되었소. 부엌초처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집

저집 빌어먹으며 살지 않으면 안되었지. 그러던 나를 한 동포가 불쌍히 여겨 데릴사위로 맞아 자기 집에 데려다 키우기로 하였소. 그가 저 사람의 아버지요.》

《장인은 자그마한 철공소를 운영하고있었소. 그는 나를 학교에도 보내주었소. 어떻게 해서든지 실력으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것이 그의 지론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의 뜻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소. 그리고 후쿠이도의 대학에도 입학하였소. 그곳에서 나는 세포유전학을 공부하게 되었소. 우리 학부에서 조선사람은 나와 박석진이라는 친구까지 해서 둘이었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소... 그때가 1957년 봄이었지. 평양에서 제1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왔던거요. 그때의 감격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하겠소만...》

로인은 눈물을 닦았다.

로인은 눈물을 닦았다.

로인은 눈물을 닦았다.

로인은 눈물을 닦았다.